



신뢰와 믿음 속의 국민 이해 제고 기관 구현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새로운 시대 변화를 향한 국내외적 상황에 부응하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총력을 경주해야 하는 시점에서 맞게 되는 새해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서도 변화의 요구를 헤쳐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는 점점 자국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각박한 실리 관계를 강요하고 있고 에너지 자원은 변함없이 자원 빈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과학 기술 중심 사회의 구현을 내걸고 국민의 과학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개인적 안락과 편의함을 추구하는 시대적 정서는 이공계 기피 현상 등 상반되는 풍조를 낳고 있다.

에너지 자원을 갖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의 이용과 확대가 불가피한 현실임에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부지 확보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에서 보듯이 공동체적

필요성과 당사자적 수용성 사이에는 아직도 커다란 격차가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는 국민 모두가 방사성 폐기물을 둘러싼 사회적 딜레마를 실감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자력에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을 수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원자력은 우리 사회와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원자력 산업이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치우쳐왔다면 앞으로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는 물론 사용후연료, 원자로 폐쇄, 신형 원자로의 개발,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 확대 등 새로운 문제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

더욱이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올바른 태도, 가치관, 이용 자세 등의 정신적 함양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 문화 사업의 입장에서는 시민 사회의 진전과 개인적 가치관의 다양화, 정보화 및 사회적 구조의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는 차원 높은

활동 방향과 목표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보다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 성장의 회복과 국민 복지 향상을 뒷받침할 국가 에너지 자원인 원자력의 국민적 이해 기반 확충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기존의 접근 방식과 개념을 새롭게 정립함은 물론 다양하고 참신한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화적 역량 제고를 통해 원자력 과학의 성숙된 정착을 지향할 계획이다.

어려웠던 주위 여건을 교훈삼아

올해의 원자력 홍보 환경은 지난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둘러싸고 주민과 빚었던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한다.

작년 하반기 동안 지속된 주민들의 반발과 반핵을 표방하는 환경 및 종교 단체들의 활동은 정상적인 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와 문화적 성숙에 기여하는 전문 기관으로서의 부여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원자력 문화 진흥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높은 역할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론과 대화를 진행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크나큰 사회적 비용은 물론 해당 주민과 정부간의 상호 이해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결국 시설의 안전성과 사후 관리, 지역 개발을 향한 장기 계획 등 생산적인 후속 조치들의 진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새만금 사업의 중도 포기 등 대형 국책 사업들을 향한 주민과 환경 단체들의 문제 제기는 직간접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확보와 원자력 확대 정책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원전 지역에서도 보상의 확대 등 새로운 비판 여론의 강도에 따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북한 핵문제 역시 국민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반면 전력 수요 성장에 따른 전력의 안정적 공급 필요성과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향후 우리 나라 산업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탄소세 부과 등은 비화석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일부 선진국에서의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재개 검토는 더욱 밝은 전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나친 생태 환경 중심적 사고에 기인한 비판적 시각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합리적인 가치와 판단을 유도하고 이를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원자력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고자 한다.

또한 그 동안의 홍보 활동을 진단하고 변화된 홍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홍보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총체적인 점검을 시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대국민 정보 제공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 지지 기반 확충을 통한 폭넓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TV·라

디오·신문·단행본·월간지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원자력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꾸준히 전파할 계획이다. 이는 현대 생활에서 대중 매체가 정보의 습득과 확산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는 데 근거한 것이며 뉴미디어의 출현과 이용 행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중 매체의 영향력은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원자력 시설의 시찰은 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가장 설득력 있는 홍보 방법인 점을 감안하되 보다 효율적인 대상과 현장감 있는 기법을 강구하면서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차세대와 관련한 홍보 활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원자력을 주제로 한 작문·논문·포스터 등 다양한 공모전을 시행하고 청소년 원자력 캠프, 우수 고교생 현장 학습, 원자력 전공 대학생 워크숍 등 원자력 시설 방문 및 체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차세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교원연수원 등에 원자력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현직 교사들의 교과 연구 단체인 원자력 교육연구회에 대해 세미나 및 원전

견학 등을 통하여 교사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각종 연수나 강좌에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원자력계 전문 인력을 강사로 위촉 파견하여 원자력에 대한 강의나 설명을 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지식 보급을 담당하도록 한다.

정부 · 사업자 · 국민 모두와 함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는 원자력계가 안고 있는 당면 과제이며 이미 지정고시된 신규 원전 부지에서 적기에 원전을 건설하는 일 또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위한 홍보 활동은 현실적인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전의 안전성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과 관련하여 언론 매체를 활용한 특집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방사성 폐기물 시민 토론회와 원자력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원자력 관련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TV를 통한 광고 및 캠페인 제작 방영, 라디오 · 신문 · 전문지를 활용한 광고에서는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다. 언론사 기자단 및 후보지 지역 주민들에게 국내외 시설 시찰을 실시하여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실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홍보 펼쳐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구성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에 따라 과학 기술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도 새로운 접근이 불가피하고 있다. 이는 홍보 또한 발상의 전환과 기법의 선진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뜻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원자력 정보 포털 사이트로 육성하는 계획은 이미 추진되고 있거니와, 원자력 홍보를 주제로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 개최, 원자력 퀴즈 이벤트 실시, 인터넷 월간지(Webzine)를 통한 정기적인 원자력 정보 등을 계속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 자료의 입수와 분석의 체계화를 위해 원자력 홍보용 종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중에 있다. 원자력 정보 관리 시스템(NIMS)을 통해 정보를 관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급할 예정이며, 주요 여론 주도층, 유관 기관, 시찰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원자력 홍보 고객 DB를 구축하여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터넷 원자력 방송국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 의식 조사는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 시행하여 원

자력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기 및 간이 여론 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다양한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원자력 홍보 모니터 제도를 통해 홍보 활동에 대한 반응 및 원전의 안전성, 지지도 등에 대한 행동 과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홍보 활동 및 홍보 전략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적 합의를 위하여

새해에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와 문화적 성숙에 기여하는 전문 기관으로서의 부여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원자력 문화 진흥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높은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가치가 다양해지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원자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더욱 긴요해진다. 이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원자력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 이해 기반을 넓혀 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다.

이는 결국 과학 기술을 중심축으로 한 국민 소득 2만달러 시대의 도래와 선진 강국으로의 진입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